

일본 노인간병 현황과 중산층을 위한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의 성장이 주는 시사점

2023. 9. 1

일본 간다외국어대학교 류재광 준교수

발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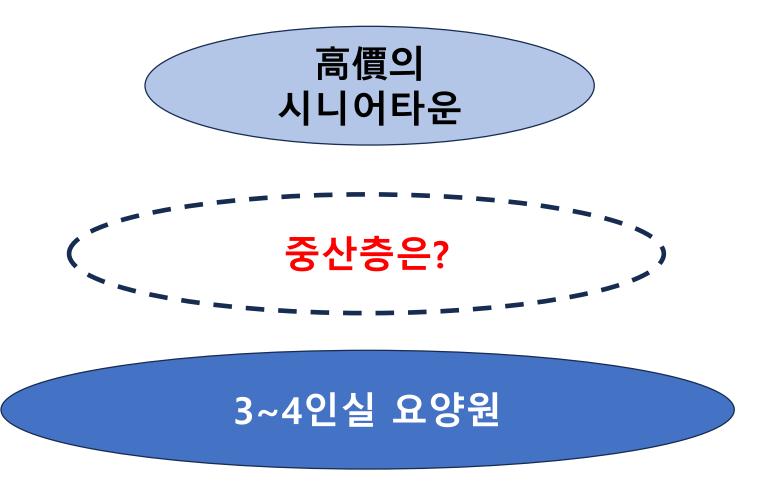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일본의 노인간병과 요양시설 및 고령자 돌봄 주택 현황
- 3. 중산층층을 위한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의 성장
- 4. 민간 고령자 돌봄 주택과 공적 개호보험의 급여적용
-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배경



한국은 향후 후기 고령자가 급증,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세대 증가, 신노년층의 주거와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그러나, 현재 중산층을 위한 입주 시설 부재



연구 목적



◉연구목적

- 일본의 중산층 대상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를 살펴보고 시사점 제시

■선행연구의 문제점

- 일본의 요양시설과 고령자 돌봄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요양원으로 표기
- 일본의 간병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시사점 도출

■ 일본인 강사 발표와 연관성

- 이 발표: 일본의 간병 현황과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 전체 구조 이해
- 일본인 강사 발표: 실제 고령자 돌봄 주택 운영사례 발표

예비 지식 및 용어 정리



■ 예비 지식 및 한국과 다른 일본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

구분	한국	일본
공적 요양보험 명칭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도입)	-개호보험(介護保険, 2000년 도입)
장기요양 인정 등급 체계	-1등급(중증)~5등급(경증)	-요지원1~2 (예방 서비스) - 요개호1(경증)~요개호5(중증)
급여종류와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시설급여, 지역밀칙형급여 -10% 공통(소득 높으면 20~30% 적용)
요양시설	-요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효요양형의료시설, 개호의료원)
주거와 간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주택	-시니어타운 or 실버타운 or 노인복지주택	- 개호형 유료노인홈 -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기타 등등

본 고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의 한국식 표현 정리



- ① 介護: 개호, 장기요양,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 또는 돌봄
- ② 介護保険: 공적 개호보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 ③ 介護施設: 요양시설 (한국의 일반적인 요양원)
- ④ 有料老人ホーム: 유료노인홈
- ⑤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서비스제공형 고령자 주택

⑥ 고령자 돌봄 주택

유료노인홈 +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 (有料老人ホーム)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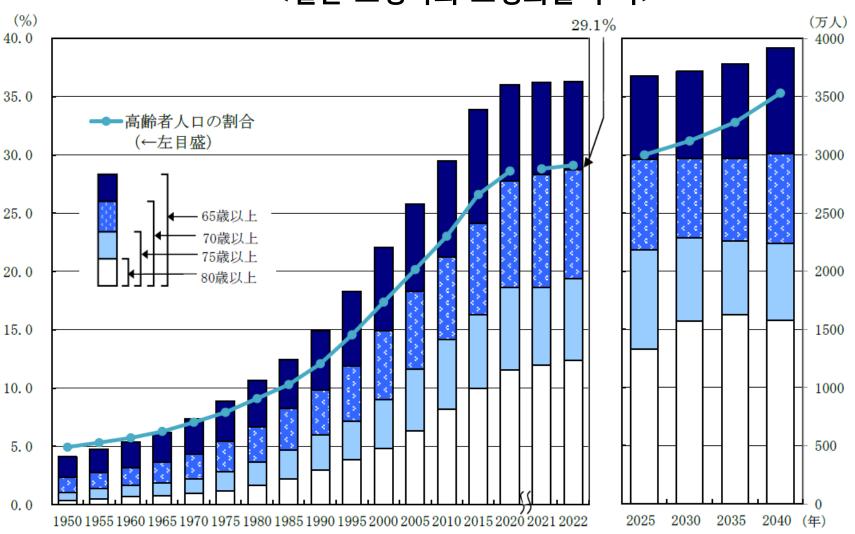
요양시설 및 고령자 돌봄 주택 현황

2. 일본의 노인간병과

일본은 이니 2005년부터 초고령사회를 경험 중



<일본 고령자와 고령화율 추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3,627만명 *전기고령자: 1,69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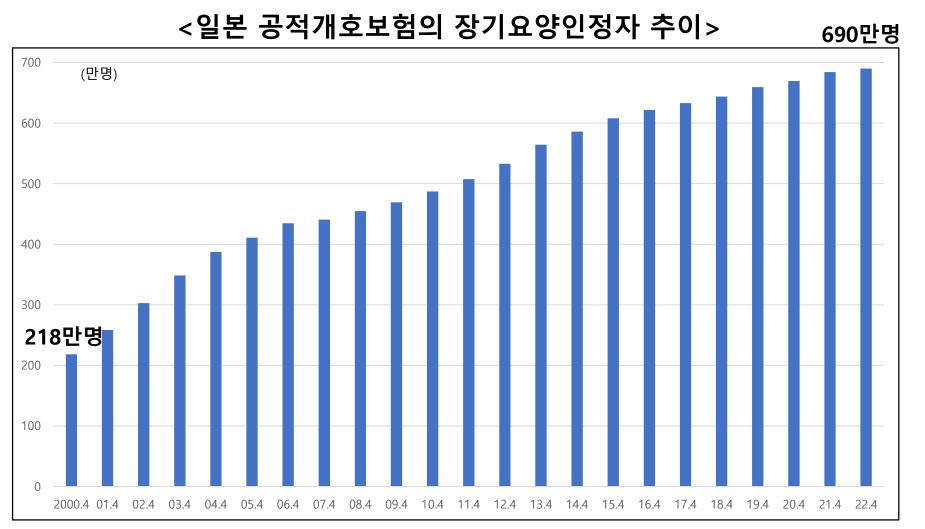
*후기고령자: 1,937만명

*80세 이상: 1,235만명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도 급격히 증가



■ 일본의 장기요양 인정자는 2000년 218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690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3,627만명의 19%

자료: 厚生労働省 (2022) 、「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를 이용해 작성.

장기요양 인정자의 거주 공간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 690만명의 81%가 재가 서비스 이용 중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현황 ○ 시설 서비스 이용: 131만명 19%

○ 재가 서비스 이용: 559만명 81%

<재가 서비스 이용자(559만명) 구성>

- ·유료노인홈 54만명 9.6% (2021.10 기준 입주자)
-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27만명 4.8% (2022.12 기준 정원)
- ·인지증 그룹홈 26만명 4.6% (2022.4 기준 입주자)
- ·자택 및 기타 452만명 80.8%

주: 각 항목별 통계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악 기준 일이 다르기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 자료: 厚生労働省(2022.9) 「介護給付費等実態調査」、厚生労働省(2022.12) 「社会福祉施設等調査の概況」、高齢者住宅協会「サービス付き 高齢者住宅情報提供システム」、国土交通省(2022.2) 「高齢者の住まいに関する現状と施策の動向」을 이용해 작성.

^{*}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2022.4 기준,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인정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인정자도 포함됨

복잡 다양한 일본의 요양시설, 고령자용 돌봄 주택



介護老人福祉施設 介護老人保健施設 介護療養型医療施設 介護医療院

生活支援ハウス 養護老人ホームケアハウス 軽費老人ホーム・A型・B型

介護付有料老人ホーム 住宅型有料老人ホーム

健康型有料老人ホーム 無届有料老人ホーム グループホーム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分譲型ケア付きマンション シルバーハウジング

⇒ 복잡한 요양시설, 고령자 돌봄 주택 구조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알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

다양한 주체가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택을 운영



운영주체	타입	시설수	객실 수
사회복지법인	개호노인복지시설	10,040	635,316
및 기외득시합된 및	개호노인보건시설	4,109	371,294
보 의료법인	개호요양형의료시설	574	22,784
의표답한	개호의료원	524	32,776
	소계	15,247	1,062,170
	경비노인홈	2,323	95,167
지방	케어하우스	2,117	83,155
자치	경비노인홈 A형, B형	206	12,012
단체	실버 하우징	890	23,848
근세	생활지원 하우스	570	6,999
	양호노인홈	949	63,547
	소계	4,732	189,561
	유료노인홈	14,982	529,923
	개호형 유료노인홈	4,192	237,988
	주택형 유료노인홈	10,508	284,623
민간	건강형 유료노인홈	20	488
22	미등록 유료노인홈	262	6,824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7,660	256,900
	그룹홈	13,945	218,180
	분양형 게어 제공 맨션	80	12,671
	소계	29,007	760,774
전국 합계		56,646	2,269,405

공적 개호보험 상 개호 시설

고령자 돌봄주택 공적 개호보험에서 재가 서비스 이용

주: 2020년 10월 기준, 항목에 따라 통계 파악의 기준 년이 다르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자료: 国土交通省 (2022) 、「データから見た高齢者住宅・施設の需給バランス」第5回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関する懇談会資料를 수정 보완해 작성.

고령자주택과 요양시설 비용의 비용은 다양



■ 민간이 제공하는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의 월 이용 비용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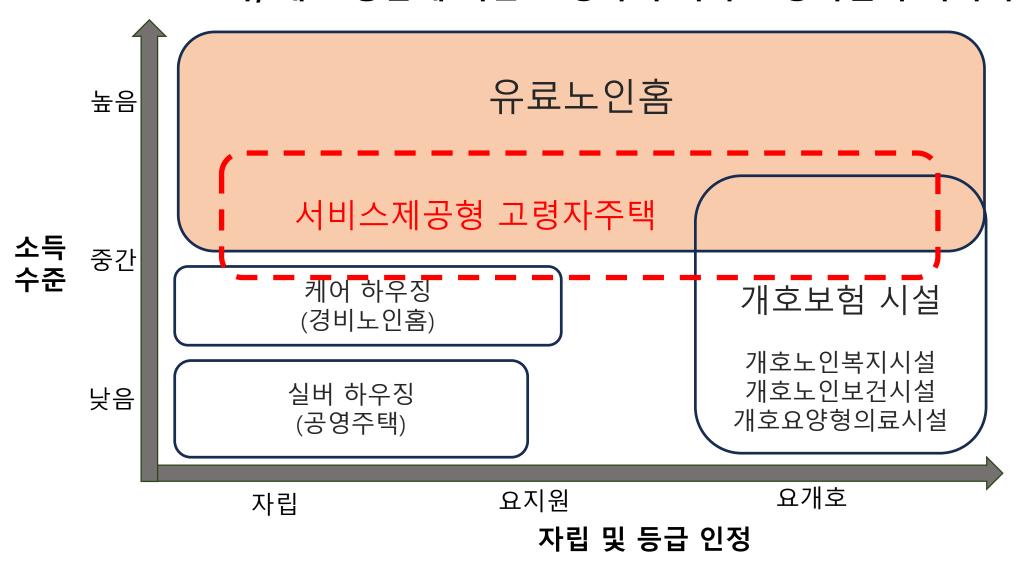
구 분	입주할 때 비용	월액 비용
特別養護老人ホーム (특별양호노인홈)	0円	4.8万~21.5万円
介護老人保健施設 (개호노인보건시설)	0円	9.3万~13.6万円
ケアハウス(軽費老人ホームC型) (케어하우스)	30万円	8万~15万円
グループホーム (그룹홈)	15万円	14.3万~14.6万円
介護付き有料老人ホーム (개호형 유료노인홈)	60万~690万円	19.6万~31.7万円
住宅型有料老人ホーム (주택형 유료노인홈)	20万~25.1万円	14.1万~18万円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15万~23.8万円	13.1万~22.1万円
シニア向け分譲マンション (시니어용 분양 아파트)	2,322.5万~4,036.1万円	5.9万~8.4万円

주: LIFULL 介護에 게재된 전국 52,000건의 고령자 돌봄 주택, 요양 시설의 요금 데이터 중 중앙치를 산출한 것. 자료: 株式会社LIFULL senior가 운용하는 고령자 돌봄 주택, 요양시설 중개사이트' LIFULL 介護'에서 인용.

소득수준과 등급에 따라 다양한 시설 이용 가능



<소득, 개호 등급에 따른 고령자 주택과 요양시설의 이미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중산층 대상 고령자 돌봄 주택



■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은 주거 공간+생활지원+간병 서비스 제공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비교



구분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근거법과 (소관 부서)	노인복지법 (후생노동성)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성)
설치 개시	1950년대 일부 존재, 70년대부터 다양화 (오노 이사 발표자료 참조)	2011년 법 시행 이후
입주공간	1인실 또는 부부	1인실 또는 부부
객실 기준	주거공간 개인실 13m ² 이상	주거공간 개인실 25m² 이상
제공 서비스	아래 중 1가지 이상 제공 ① 식사 제공 ② 목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③ 세탁, 청소 등의 가사 ④ 건강관리	아래 2가지 필수 제공 ①안부확인 서비스 ②생활상담 서비스
종류	 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건강형 유료노인홈 	식사 등 추가 서비스 제공시 유료노인홈 취급

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이용해 작성.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의 성장

3. 중산층을 위한

(1) 유료노인홈: 종류와 특징



■ 유료노인홈에는 3종류가 있으면 개호형과 주택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구분	특징
① 개호형 유료노인홈	- 자립상태에 입소해 생활하다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거주하는 유료노인홈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당수가 임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유료노인홈 내부 직원이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형과 안부확인과 케어플랜 등은 내부직원이 제공하지만 요양서비스는 위탁 기관이 제공하는 외부서비스 이용형이 있음
② 주택형 유료노인홈	-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외부 사업소의 방문 개호,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하는 시설임
③ 건강형 유료노인홈	- 자립 상태에서 입소해 생활하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퇴소하는 시설로 시설 수가 많지 않으며 민간 기업의 활용도도 떨 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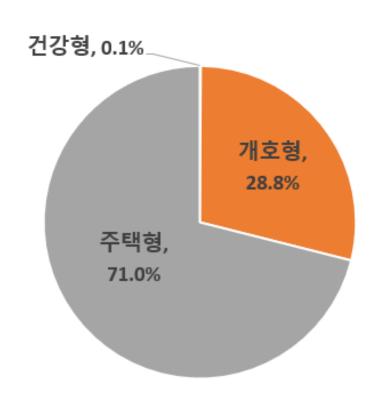
자료: 각종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유료노인홈 유형별 시설 수와 정원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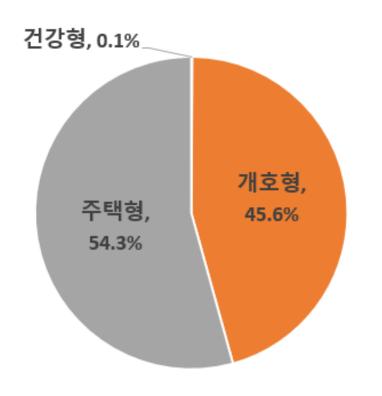


■ 3개 유형 중 주로 개호형과 주택형이 이용되고 있음

<유료노인홈의 시설 수 비중>



<유료노인홈의 정원 수 비중>



개호형과 주택형 유료노인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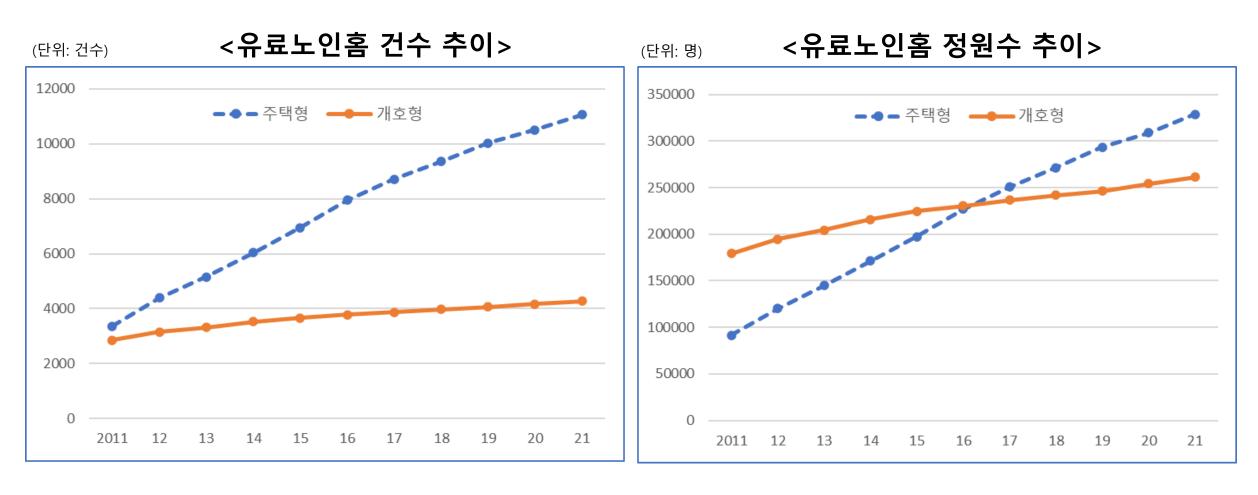


인가 유무 지도감독 및 권한 개호보험법에 근거한 권고, 개선명령, 지정취소 등 가호보험 서비스를 시설에서 직접 제공 -개호보수는 시설에 포괄보수로 지급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관리자 1명 -생활상담원: 요개호자 100명당 1명 -간호사, 요양보호사: 요지원자 100명당 1명 -간호사, 요양보호사: 요지원자 100명당 1명 -가흥련지도원:1명 이상 -계획 작성 담당자: 개호지원전문요원 1명 이상 -계획 작성 담당자: 개호지원전문요원 1명 이상 -에시 개호실: 간병할 수 있는 직접한 넓이 -익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는데도 적합할 것 -확장실: 거실이 있는 증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건식당, 기능훈련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시설 전체: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당 이용 가로 기용하는 이용할 이용 개호보실 당하고 입소자 1인당 바다면적은 13평방미터 이상 등 -욕실, 레이 개호실: 간병할 수 있는 적접한 넓이 -시설 전체: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당 한 되어 -시설 전체: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한 수 있는록 폭은 원칙적으로 1.8미터 이상 등	구분	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 ## ## ## ## ## ## ## ## ## ## ## ##	인가 유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지정	도도부현 등에 신고
-개호보수는 시설에 포괄보수로 지급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개별 계약 후 이용, 개호보수는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각 사업소에 지급 변령상 규정은 없지만 표준지도지침(국장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 - 인주자, 요양보호사: 요지원자 100명당 1명 - 간호사, 요양보호사: 요지원자 100명당 1명 - 기능훈련지도원:1명 이상 - 계획 작성 담당자: 개호지원전문요원 1명 이상 - 계획 작성 담당자: 개호지원전문요원 1명 이상 - 기호가 등을 직접 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 체제를 구축할 것 - 임시 개호실: 간병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지하실에는 설치하지 말 것 등 -임시 개호실: 간병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 목욕하는데도 적합할 것 - 화장실: 거실이 있는 증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것 - 식당, 기능훈련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 시설 전체: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역 복도는 입소자가 휠체어 등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폭은 원칙적으로	지도감독 및 권한	개호보험법에 근거한 권고, 개선명령, 지정취소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개선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
주요 인력기준 -생활상담원: 요개호자 100명당 1명 -간호사, 요양보호사: 요지원자 100명당 1명 -가능훈련지도원:1명 이상 -기능훈련지도원:1명 이상 -계획 작성 담당자: 개호지원전문요원 1명 이상 -계획 작성 담당자: 개호지원전문요원 1명 이상 -개호거실: 원칙 개인실, 프라이버시 보호 배려, 간병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지하실에는 설치하지 말 것 등 -임시 개호실: 간병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 -욕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는데도 적합할 것 -화장실: 거실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것 -식당, 기능훈련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시설 전체: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역 복도는 입소자가 휠체어 등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폭은 원칙적으로		-개호보수는 시설에 포괄보수로 지급	개별 계약 후 이용, 개호보수는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개오기글. 전복 개인글, 프다이미지 모오 메더, 인당을 무있는 적당한 넓이, 지하실에는 설치하지 말 것 등 -임시 개호실 : 간병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 -욕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는데도 적합할 것 -화장실: 거실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것 -식당, 기능훈련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시설 전체 :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고가과 구조	주요 인력기준	-생활상담원: 요개호자 100명당 1명 -간호사, 요양보호사: 요지원자 100명당 1명, 요개호자 3명당 1명 -기능훈련지도원:1명 이상	제시 - 입주자 수 및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관리자, 생활상담원, 영양사, 조리원을 배치할 것 -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요개호자 등을 직접 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호서비스의
	주요 시설 기준	있는 적당한 넓이, 지하실에는 설치하지 말 것 등 -임시 개호실: 간병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 -욕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는데도 적합할 것 -화장실: 거실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것 -식당, 기능훈련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시설 전체: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해 제시 - 일반거실, 개호거실, 임시개호실: 개인실로 하고 입소자 1인당 바닥면적은 13평방미터 이상 등 - 욕실, 세면시설, 화장실을 거주실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수를 마련할 것 - 개호거실이 있는 구역 복도는 입소자가 휠체어 등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폭은 원칙적으로

개호형보다 주택형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 입주 비용이 저렴하고 규재가 덜한 주택형의 공급과 정원수가 급격히 증가



자료: 国土交通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資料를 이용해 작성.

(참고) 개호형 유료노인홈 사례 1 전원형



<**유유노사토 사쿠라>**

ゆうゆうの里 佐倉 (도쿄근교)



< 유유 上 사 토 쿄 토 > ゆうゆうの里 京都



자료: https://www.yuyunosato.or.jp

(참고) 개호형 유료노인홈 사례 2 도심형



<SOMPO케어 라비레 그란 요츠야>

SOMPOケア ラヴィーレグラン四谷





자료: https://www.sompocare.com/service/home/kaigo/H000440

(2) 서비스제공형 고령자 주택: 개요



■고령 친화적인 건물 구조와 안부확인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등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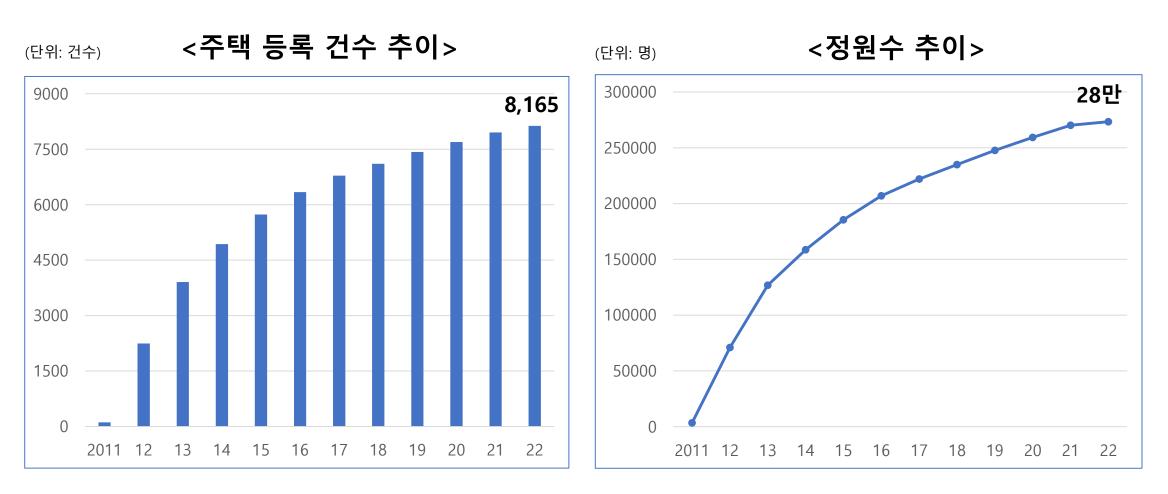
구분	개요
건물 설계	 바닥면적 25m² 이상 베리어프리 구조(복도 폭, 단차 제거, 손잡이 설치 등) 구조, 설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제공 서비스	- 필수 서비스: 안부확인서비스, 생활상담 서비스 *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 (식사, 세탁 등 가사지원 등)
입주자와 계약	 보증금, 월세, 서비스 비용 이외 추가 금전을 징수하지 말 것 장기입원을 이유로 일방적 해약을 하지 않는 등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입주자 요건	- 60세 이상일 것 또는 등급인정을 받을 자

자료: 国土交通省(2022)、「高齢者の住まいに関する現状と施策の動向」을 이용해 작성.

주택수와 입주자수는 급격히 증가



■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등록 건수와 입주자수는 급격히 증가, 서비스도 진화



자료: 国土交通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資料와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情報検索システム를 이용해 작성.

민간이 주도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필수 서비스만이 아니라 많은 곳이 유료노인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

<운영주체 비중>

<제공 서비스 현황>



자료: 一般社団法人高齢者住宅協会(2022)、「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の現状と分析」을 이용해 작성.

서비스는 주로 병설 시설을 통해 제공



■ 전체의 75%가 1개 이상 시설을 병설, 데이서비스센터와 방문개호는 40%가 설치

<병설 시설 설치 비중>

병설 시설수	설치비중
1개 시설	33.4%
2개 시설	19.5%
3개 시설	11.4%
4개 시설	5.3%
5개 시설	2.7%
6개 시설	1.3%
7개 시설 이상	1.3%

* 전체 주택의 75%가 1개 이상 설치

<병설 시설 종류와 설치 비중>

병설 시설 종류	설치비중
데이서비스센터	41.1%
방문개호사업소	40.7%
재가개호지원사업소	21.9%
방문간호사업소	9.5%
소규모다기능재가사업소	8.0%
정기순회 수시대응형 방문사업소	4.7%
식사서비스 시설	4.1%
진료소	4.1%
단기입소 사업소	3.6%

자료: 一般社団法人高齢者住宅協会(2022)、「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の現状と分析」을 이용해 작성.

평균 연령은 84.2세, 월납부액은 평균 약 11만엔



■ 입주자는 75세 이상이 90%, 월 납부액은 20만엔 미만이 대부분

<현재 입주자 연령 구성>



<전국 평균 월납부액 현황>



- * 월납부액: 월세+관리비+서비스비(안부확인 등)
- * 개호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10%는 포함 안됨

주: 입주자 연령은 2000년 실태조사 결과, 월납부액은 2021년 8월 기준. 자료: 国土交通省 (2022) 、「高齢者の住まいに関する現状と施策の動向」第6回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関する懇談会資料를 이용해 작성.

(참고)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사례(도심형)



<SOMPO케어 라비레 레지던스 요가>

SOMPOケア ラヴィーレレジデンス用賀





3층~6층 객실 1인싱~2인실 등

2층 케어 플로어 24H 간병서비스

1층 라운지, 식당 컨시어지 데스크 등

자료: SOMPOケア ラヴィーレレジデンス用賀 팜플렛.

공적 개호보험의 급여적용

4. 민간 고령자 돌봄 주택과

민간 고령자 돌봄 주택의 공적 개호보험 적용 조건



*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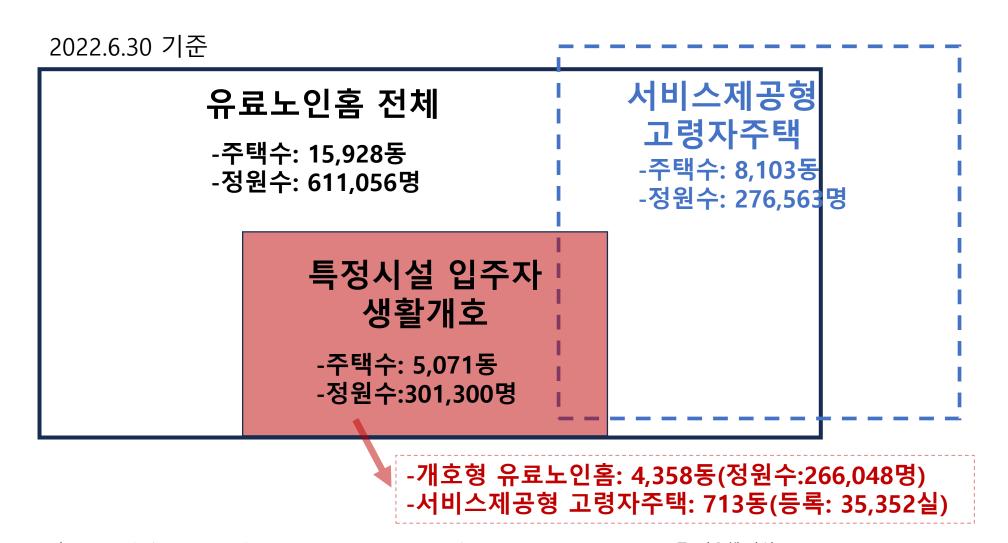
■ 고령자 돌봄 주택 중 특정시설로 인정받은 곳은 공적 개호보험 통해 급여 수급 가능

- 특정시설 대상
 -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케어하우스, 양호노인홈 (참조) 유료노인홈 중 특정시설로 인정받으면 '<mark>개호형 유료노인홈</mark>' 명칭 사용 가능
- 인력 기준
 - 관리자 1명, 생활상담원(요개호자:생활상담원=100명:1명)
 - 간호·간병인력(요지원자: 간호간병인력=10:1, 요개호자:간호 간병인력=3:1)
 - 간호직원은 요개호자 30명까지 1명, 30명 초과시 50명마다 1명, 야간 직원은 1명 이상
 - 기능훈련지도원(1인 이상), 개호지원전문인 1명이상(요개호자:개호지원전문인=100:1)
- 설비 기준
 - 원칙 개인실, 임시 개호실 : 간병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
 - 욕실 :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는데 적합할 것
 - 화장실 : 거실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것
 - 식당, 기능훈련실 :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 -시설 전체 :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

기존 고령자주택과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관계도



■ 유료노인홈 중 27.4%,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의 8.8%가 특정시설로 지정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시설과 입주자는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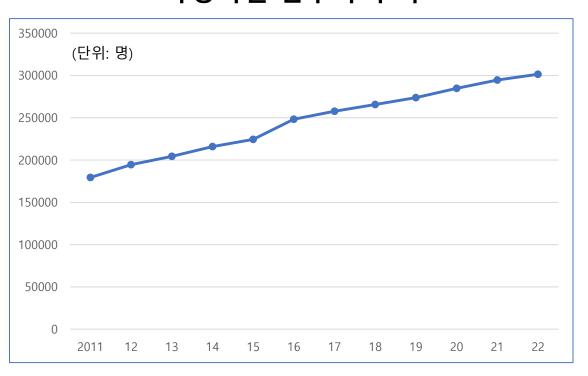


■ 특정시설 지정한 주택 수와 입주자는 10년간 60% 증가

<특정시설로 지정한 주택수 추이>



<특정시설 입주자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를 이용해 작성.

평균 운영연수는 11.2년, 절반은 입주자격 요건 없음



■ 2003년 이후 개설한 시설이 많으며 절반 이상은 건강상 입주 요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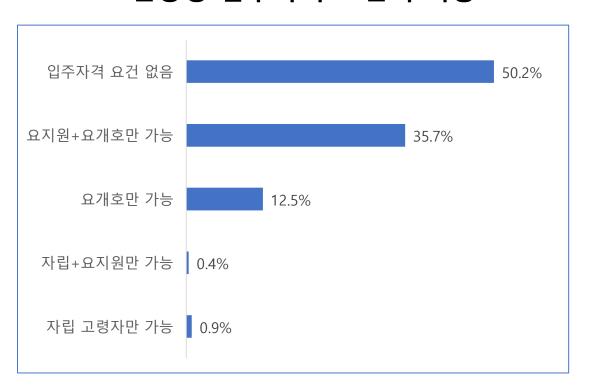
<특정시설 신규 개설 시점 비중>

2018-2020년 2015-2017년 2012-2014년 2009-2011년 16.5% 2006-2008년 2003-2005년 2000-2002년 5.0% 2021년 기준 평균 운영 기간

3.9%

1999년 이전

< 건강상 입주자격 요건의 비중 >



자료: PwCコンサルティング (2022) 、『高齢者向け住まいにおける運営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実態調査研究』를 이용해 작성.

11.2년

특정시설 현황 서베이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 도심과 지방을 포함한 조사결과이며 수치는 전국 평균치임

- 특정시설 운용주체
 - 주식회사 79.3%, 유한회사 6.1%, 사회복지법인 6.3%, 의료법인 6.3% 등
- 특정시설 현황
 - 평균 객실수: 56실(1, 2인실 포함), 입주한 평균 객실수: 50.8실, 평균 가동률: 91.2%
 - 평균 정원: 59.2명, 입주자 평균: 52명, 입주율: 90%
 - 평균 간병인력: 23명(개호복지사 비중 52.8%), 평균 간호인력: 4.6명(상근, 비상근 포함)
 - 야간 근무 평균인원: 2.5명
 - 영양사 1.6명, 시설내 조리: 직영 31.5%, 위탁 55.8%,
- 입주자 현황
 - 입주자 연령: 65세 이상 99.3%, 75세 이상 94.8%, 90세 이상 44.1%
 - 평균 요개호도: 2.4, 요개호3 이상: 41.2%

주: 2020년 시점에 등록 완료된 시설 대상으로 2021년 9월~10월 조사, 시설 중 총 7,500시설을 추출해 설문지 배포 후 3,330시설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음 자료: PwCコンサルティング(2022)、『高齢者向け住まいにおける運営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実態調査研究』를 이용해 작성.

특정시설 월평균 비용 서베이 결과 (2021년 기준)



■ 특정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가격이 비싼 편

*가격에는 공적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안됨

		구 분	특정시설	주택형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특정시설로 ──지정 받지 않은 곳
총	총 비용(윌액 환산)		257,435円	112,410円	142,215円	
	거주	^두 비용 (입주 <u>일시금</u> 반영한 월세)	135,984円	43,343円	61,344円	
		(참고) 1㎡당 거주 비용	7,521円	3,132円	2,887円	
		입주 시 비용 (입주 <u>일시금</u> 월액 환산)	38,348円	1,343円	0円	
		(참고) 보증금 등 미리 받은 목돈	94,710円	45,367円	96,756円	
		a. 월세 상당액	84,790円	40,926円	58,901円	
	월 이용 요금 소계		122,457円	72,480円	86,403円	
		관리비, 서비스 <u>이용비</u> (b+c)	68,578円	27,941円	38,747円	
		b. 공익비, 관리비 상당액	60,651円	23,918円	19,023円	
		c. 생활지원·개호서비스비, 기본 서비스비	4,920円	2,397円	19,011円	
		d. 식비	50,742円	40,920円	45,877円	
		e. 광열비	4,505円	4,310円	1,566円	

37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향후 후기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2030년경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 전망 >

(명) 20,000,000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인구 전망 이슈>

2023년 949만명

- -전기고령자 551만명
- -후기고령자 398만명

2037년 후기고령자가 추월

-전기고령자<후기고령자 806만명 811만명

2044년

- -후기고령자 1000만명 시대
- -이후 1200만까지 증가

자료: 한국 통계청 (2021.12) 、『将来人口推計: 2020~2070年』을 이용해 작성.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디서 생활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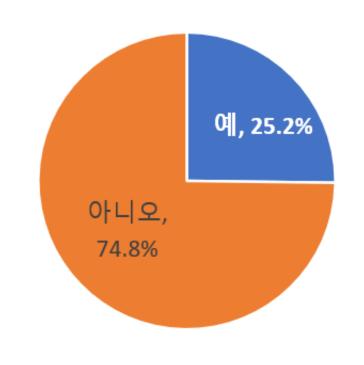


■ 자녀 집에서 직접 모실 의향은 매우 낮아 돌봄 장소 확보가 필요

<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 수급자 건강 악화시 선호 돌봄 장소

보인요양시설 39.3% 현재 집 29.5% 요양병원 25.3% 자녀 또는 형제 자매 근처 1.4%

< 시설급여 수급자의 가족 > 수급자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



자료: 보건복지부(2023.8),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이용해 작성.

주거와 서비스의 다양한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



■ 요양원이 아닌 중산층 대상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이 필요

<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종류>

고령친화주거공간+안부 확인



주거공간+안부 확인+식사 제공



주거공간+안부 확인+식사 제공+24H 간병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안부 확인+식사 제공+24H 간병서비스 제공+임종 서비스 제공

중산층을 위한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 필요



■ 일본 사례를 참고 삼아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

<일본의 고령자 돌봄 주택은 좋은 사례>

개호형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방식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 도입

고령진화 주거공간과 간병서비스 등 제공 주택 *공사 협력: 공적부문만으로는 비용문제에 한계가 있어 민간 참여를 통한 공급 확대 필요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돌봄에 보험업계도 기여할 필요한

- (1)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이라는 새로운 법적 인프라 구축
 - 보험업계의 연구조사 능력, 규제산업에 대한 노하우 활용
- (2) 신규 돌봄 주택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
 - 보험업계의 자본력 활용, 자산운용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
 - 제도 개선을 통한 리츠 활용 검토
- (3) 요양보호사 인재육성 및 연수를 통한 스킬업
 - 간병비즈니스는 보험업계와 유사해 인재가 핵심 경쟁력
 - 보험업계의 축적된 인재육성 노하우 활용(연수시설 이미 확보)
- (4) 주택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활용한 홍보
 -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시 안내
- (5) 보험비즈니스와 시너지 효과
 - 간병보험상품 판매와 링크, 시설 운영 리스크 보험상품 등



감사합니다